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24-902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 현재(2024. 4월) 평가제 개편 세부(안)은 확정 전이므로 평가지표,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발간사



본 사례집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의 수상작을 담아 발간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부모는 만족하고, 어린이집은 성장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 품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편되는 평가제도에 대한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시범사업 참여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궈낸 다양한 사례와
정책 제안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본 사례집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내용에 대해 쉽게 전달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실현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시사점으로 삼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유아 중심의 평가제도 개편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보육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ONTENTS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1.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및 시범사업 소개

추진 배경 06
주요 방향 07
시범사업 08
시범사업 공모전 11

2. 어린이집(기관) 부문 수상작

대 상 서울 마포구 성산누리어린이집 14
최우수 세종 도담꿈어린이집 16
서울 중랑구 열린꿈어린이집 19

우수상 서울 양천구 구립 누리봄어린이집 22
서울 동작구 구립 노블어린이집 25
경기 화성시 시립 동탄파크자이어린이집 27

장려상 경기 오산시 시립 은빛어린이집 29
충북 청주시 근로복지공단수안들어린이집 31
충남 아산시 캐슬어울림어린이집 34
충남 천안시 청당서희어린이집 36

3. 부모(개인) 부문 수상작

우수상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어린이집 부모 43
장려상 충남 당진시 한라비발디어린이집 부모 46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1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및 시범사업 소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및 시범사업 소개

1 | 추진 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는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다. 즉, 어린이집 평가제는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제도는 3만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설·환경 등의 구조적 질을 평가하는 요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문서 중심의 평가는 보육 활동에 대한 기록이 주요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평가를 위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어린이집 평가가 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평가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2024. 7. 3. 시행

2 | 주요 방향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제 개편 추진

※ 평가제 개편 법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평가제 개편(안)에서는 '과정적 질 중심으로의 평가 전환',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 관리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정적 질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부모에게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자율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 질 관리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평가 전에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평가제 개편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편
목적	• 보육서비스 품질 사각지대 해소	•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직접 유도
지표	• 4영역, 18지표 • 정량평가(N/Y)	• 6영역, 15항목 • 정성평가(서술형)
평가 과정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기본사항 및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	• 평가결과 단편적 제공(예: A등급)	• 평가결과 영역별 서술형 제공
사후 관리	• 사후방문·확인점검 등 평가 후 관리	• 연차별 자율관리 및 사후(맞춤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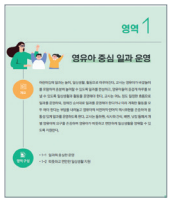
3 | 시범사업

평가제 개편(안)의 사전 점검 및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5개월간(2023. 8~12월) 평가제도 개편안을 적용한 평가과정의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1. 대상 모집 및 설명회(2023. 8~9월)

내용	설문조사 결과
• 시도 및 지자체 연계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모집 (전국 총 344개소 참여) • 사업설명회를 통해 개편 방향, 진행 절차 안내 • 평가지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내서 및 교육 제공	**평가지표 안내** "안내서의 내용이 평가지표 이해 및 적용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7.8%) **시범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사업설명회가 시범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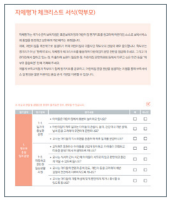
평가지표 안내서

2. 자체평가(2023. 9월)

내용	설문조사 결과
•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보육서비스 품질 자율점검 시행 • 실효성 있는 자체평가 지원을 위해 자체평가 안내서 배부	**평가과정 부모 참여** "자체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집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4.2%) **부모용 자체평가 서식** "자체평가 시 부모용 서식 제공이 어린이집 운영 점검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8.1%)



자체평가 안내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설문조사(2023. 12월, 총 550명(보육교직원 446명, 부모 104명) 참여

3. 현장평가(2023. 10월)

내용	설문조사 결과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 진행
- 관찰, 면담 위주의 평가 진행
  - 검토 문서 대폭 축소(17→7종)
- 평가 당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현행 (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역 (4개)		지표 (18개)
I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 보육과정 평가
II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3. 기관 운영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III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IV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현행 평가지표

개편 (6영역 15항목)

영역 (6개)		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 · 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개편 평가지표

상호작용 평가 확대
"보육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확대한 것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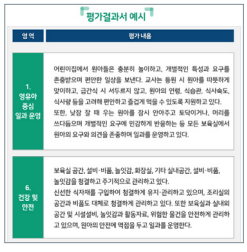
평가문서 간소화
"평가 문서를 간소화한 것이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1.5%)

평가 당일 컨설팅 제공
"평가 당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강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6.1%)

4. 평가결과 안내(2023. 11월)

내용	설문조사 결과

- 알파벳 등급제를 폐지하고, 구체적 서술식 결과서 제공
- 영역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



평가결과서 예시

서술형 평가결과서 제공
"평가결과를 서술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평가 결과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97.1%)

"서술형 평가결과서가 자녀의 어린이집 선택 시 도움이 될 것이다"
(학부모 응답자 93.3%)

*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설문조사(2023. 12월, 총 550명(보육교직원 446명, 부모 104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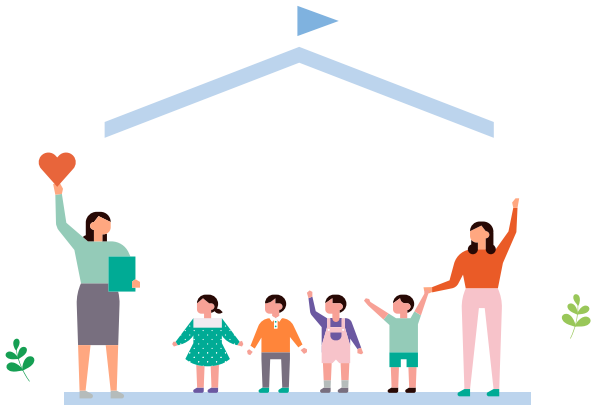
5. 시범사업 운영 환류(2023. 12월)

내용	설문조사 결과
• 간담회, 공모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평가제 개편 도모	**시범사업 만족도** "개편(안)에 따른 시범사업이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라는 취지에 적합하다" (응답자 96.4%) **시범사업 효과성**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되었다" (응답자 94.8%)



간담회 운영

*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설문조사(2023. 12월, 총 550명(보육교직원 446명, 부모 104명) 참여



4 | 시범사업 공모전

- 참여대상: 2023 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기관) 및 부모(개인)
- 공모내용: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수기 및 제도 발전방안
- 응모 및 심사 결과

1. 어린이집(기관) 부문 결과(176건 접수, 10건 당선)

상훈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참가작
대상	서울	마포구	성산누리어린이집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교사의 친구가 되어주는 어린이집 평가제
최우수	세종	-	도담꿈어린이집	I(나, 아이)를 향한 첫걸음! 현장중심, 과정중심 평가제를 바라보다
	서울	중랑구	열린꿈어린이집	평가제를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이야기
우수상	서울	양천구	구립 누리봄어린이집	다함께 평가제 새로고침
	서울	동작구	구립노블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든든한 지원자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경기	화성시	시립동탄파크자이어린이집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
장려상	경기	오산시	시립은빛어린이집	2024 개편 평가제 지표 마련을 위한 제안
	충북	청주시	근로복지공단수안들어린이집	평가제로 배운 자신감! 전문 놀이 지원가로 거듭나다!!
	충남	아산시	캐슬어울림어린이집	볼륨UP~!! 보육 UP~!!
	충남	천안시	청당서희어린이집	'평가제 학습공동체' 함께라서 할 수 있었다

2. 부모(개인) 부문 결과(14건 접수, 2건 당선)

상훈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참가작
우수상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 어린이집 부모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의 문을 열다
장려상	충남	당진시	한라비발디 어린이집 부모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수기 (아이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 최종 심사 결과 부모 부문의 대상,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않음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어린이집(기관) 부문 수상작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대상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교사의 친구가 되어주는 어린이집 평가제

서울 마포구 성산누리어린이집

1 | 시범사업 입문하기

처음 개편(안) 평가지표 안내서를 받아보고 개편되는 평가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평가제를 거치면서 환경적인 면이나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교사들의 에너지 소진도 커져 '평가제'라는 말만 들어도 교사들은 한숨부터 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평가제는 '평가'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보육교사,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우리 원의 특장점을 찾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변화된다는 점을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 시범사업 준비하기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질 높은 상호작용'입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영유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 주도 놀이방식을 실시한다고 표방하지만, 바람직한 영유아 주도 놀이에 관해 모든 교사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이 부분을 점검받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원은 평가제 개편(안) 평가지표 안내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편 평가제 안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실제 연령별 상호작용 사례를 세세히 기술해놓아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사들과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사례를 익혀보자는 아이디어로 지침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교사, 영유아 역할을 각각 맡아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 아이들과 상호작용 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아반 상호작용 역할극



유아반 상호작용 역할극

두 번째로 평가제 개편(안) 평가지표 중 상호작용 관련 자가점검표를 만들어 일과 중에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 어려웠던 점 등을 기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기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료들과 고민되는 부분을 함께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동료 교사의 '배우고 싶은 점 칭찬하기'란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서로 배울 점에 대해 칭찬하면서 교사의 자존감 향상 및 질 높은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 부족한 부분은 본인만 평가하도록 했고, 동료 평가는 칭찬하기만 실시하여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3 | 시범사업으로 달라진 우리의 모습

시범사업 현장평가까지 마치고, 현장평가자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보다는 저희 어린이집의 장점과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격려해주셨고, 보완할 부분도 세심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증 도장을 '쾅쾅' 받은 느낌입니다.

기존 평가제는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제 같았다면, 개편되는 평가제는 교사들의 강점과 잘하고 있는 점들을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해결하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시범사업 참여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평가를 진행한 학부모님도 지표대로 점검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줄 몰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너무 쉬웠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 과정과 실제 평가를 받고 난 후, '참여하길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개편되는 평가제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교사의 친구가 되어주는 어린이집 평가제'라고요.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최우수상

I(나, 아이)를 향한 첫걸음! 현장 중심, 과정 중심 평가제를 바라보다

세종 도담꿈어린이집

1 | 평가제 개편(안)에 대해 느낀 점

이번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더욱 개선되고 보완된 보육과정과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는 추진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영역에서 실행 여부, 결과 중심 위주로 확인하는 문서 등의 평정이 많이 축소되어 심적 부담이 적었다. 특히 보육과정 계획과 실행 내용을 서류나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관찰과 면담을 통해 점검하여 더욱 취지에 맞는 방향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우리 영아들에게 지속성 있는 놀이를 지원해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평가제 개편(안)이 어린이집을 서류의 유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제를 제시하고 질적 수준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세세하게 어린이집의 모든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평가제도의 면담은 기록 및 관찰에서 보이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개편(안) 시범사업 면담은 기록이나 관찰에서 확인했어도 실제 원장과 교사의 가치관이 일상 놀이와 일치하는지, 평소에도 더욱 놀이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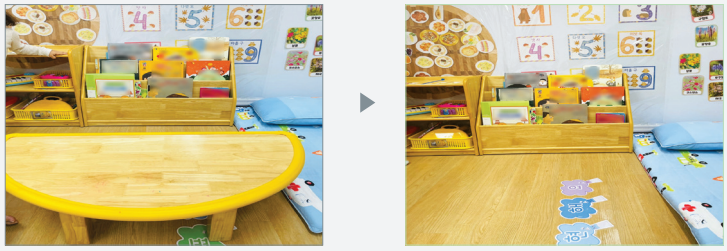
형식적으로 영아의 놀이에 대해 면담하는 것이 아닌, 놀이를 지원해준 이유, 지원했을 때 영아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의 대처 방안, 실제 사례 등 영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놀이가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영아 중심의 놀이에 대해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 시범사업 평가지표(안) 현장 적용 사례

시범사업 평가지표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을 현장에 적용하여 영아가 장애,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장애와 관련된 손가락 인형,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그림책을 제공해주었다. 영아가 관심을 보일 때,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원해주려 했으나, 0~2세를 대상으로 놀이를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평정 항목으로 보완되거나, 영아 또는 유아의 수준으로 구별하여 연령별 수준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

| 현장 적용 사례 |

모든 곳이 우리의 놀이터! 사례 1



개선 전 → 개선 후

평가 항목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그림책을 탐색하는 영아들을 위해 책장 앞에 책상을 비치해두었다. 영아들은 그림책보다는 블록으로 놀이하기를 원했고, 블록으로 기차놀이를 하는 영아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며 책장 앞까지 확장되어 책상과 교구장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영아의 흥미 놀이가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책상을 재배치했다.

| 현장 적용 사례 |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 안녕? 사례 2



개선 전



개선 후

평가 항목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구 바구니에 손가락 인형을 제시해 주었으나, 교사의 상호작용이 없을 때 쉽게 흥미를 잃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의 흥미가 이어지도록 평소 즐겨 하는 스티커 붙이고 떼기 놀이에서 착안해 영아들이 오고 가는 보육실 창 공간에 벨크로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영아가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소근육 발달까지 도울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했다.

3 | 시범사업 평가 결과서 활용 사례

현장평가 결과, 영아와의 상호작용 부분에서 교사가 영아의 말에 상시 귀를 기울이고, 영아가 교사에게 비언어적(표정, 몸짓, 손짓)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 교사가 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영아가 편안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받았다.

이처럼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평가 결과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평가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목적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 어린이집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파악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영아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최우수상

평가제를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이야기

서울 중랑구 열린꿈어린이집

1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도전하기

"우리도 한번 시범사업에 참여해볼까? 어렵지는 않을까? 어렵더라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더 행복해하는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며 우리는 한마음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2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준비하고 실행하기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학부모님께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원장 1인, 교사 1인, 학부모 1인 총 3인의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육교직원이 모여 평가지표 안내서를 펼친 후 함께 읽고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내서에 사례별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안내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찾아보았습니다. 2영역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과 3영역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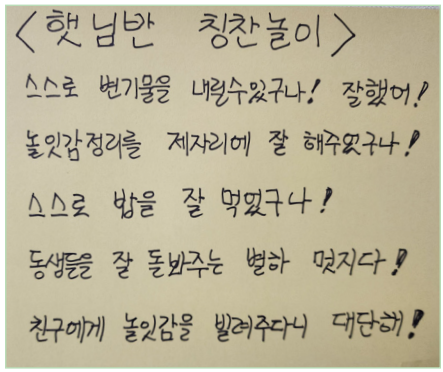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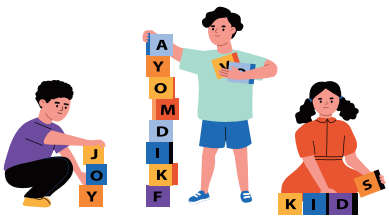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서 배움을 지원하려면 놀이 관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어떤 배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선생님이 어떤 놀이자료를 더 제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놀이와 상호작용 관련 자체 자율장학을 실시했습니다. 한 반씩 아이들이 주도하는 놀이와 배움 지원,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자율장학을 실시하며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부족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새로운 놀이가 많아서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는 교사가 주도하는 놀이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교사가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3 | 컨설팅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보완하기

첫 번째로 '긍정적 칭찬하기'를 위해 선생님들은 우리 반 칭찬일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칭찬했는지 일기를 써보니 그동안 칭찬에 인색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벽면에 '우리 반 아이들 칭찬하기' 글귀를 붙여놓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기를 하며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하고, 원장은 선생님들을 칭찬하며 어린이집 분위기가 밝고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이 협소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놀이 시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확장되면 전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역할, 쌓기 영역을 매우 선호하는 2세반 교실은 역할, 쌓기 놀이가 시작되면 공간을 넓게 구성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와 시간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영아기 아이들이 정리 시간, 식사 시간, 낮잠 시간 등의 일과 시간에 놀이를 더 하고 싶을 경우 아이와 함께 약속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계에 그림을 붙였습니다. 15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동물 그림을 붙여 놓고 “시곗바늘이 토끼까지 가면 밥 먹으러 가볼까?” “시곗바늘이 사자한테 갈 때까지 놀이해볼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정했습니다. 시계를 보지는 못하지만 영아들에게 친숙한 동물 그림을 붙여 주니 아이들도 일과의 흐름에 따라 약속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후 어린이집과 교직원이 한 단계 성장했고, 아이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합니다.

4 |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

컨설팅 중심으로의 제도 변화가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부담이 덜했고, 서류가 많이 간소화된 부분도 개편되는 평가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호작용 컨설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특히 개편되는 평가지표에서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후 컨설팅 등을 통해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우수상

다 함께 평가제 새로고침

서울 양천구 구립 누리봄어린이집

1 | 새로고침 하나-사업설명회

교직원과 함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담임교사들은 "이제야 평가제 서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라며 새로고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수많은 서류가 아니라 아동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놀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 스스로 자체평가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 개편(안) 취지인 현장평가 전 자체평가 강화와 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율관리 체계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다.

자체평가 안내서를 통해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와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의 개편 방향을 교사들과 인지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지표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사들과 평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영·유아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포함한 일과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았다.

2 | 새로고침 둘-교직원 자체평가

기존 평가제는 현장평가 전 서류 점검과 환경 정비로 힘들었던 반면, 개편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는 과정적 질 중심 보육과정을 평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직원 자체평가로 여러차례 '열린 나눔의 시간'을 갖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반영 1 놀이 기록 및 지원 계획

우리 원의 비전과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각 반별로 교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모습을 공유했다. 평가제 새로고침을 통해 놀이를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도 기록해보았더니,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작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 간 열린 나눔으로 상호 협력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졌다.

반영 2 보육과정 운영 자율장학

2세반에서 놀이를 관찰하다 자신이 만든 놀잇감을 전시하고 싶어 하는 영아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놀잇감으로 가득 찬 교구장에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교사는 영아를 위해 빈 교구장을 내어주었다. 그러자 직접 만든 놀잇감을 하나 둘씩 올리고 친구에게 내가 만든 놀잇감을 소개하며 함께 놀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영 3 놀이 공간의 확장

어린이집 텃밭 놀이터를 조성하고 사계절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사회적 놀이를 지원했다. 그뿐 아니라 탄소중립 환경 놀이를 텃밭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주었다. 이처럼 정형화된 놀잇감에서 자연 수확물이 놀잇감이 되는 놀이의 무한한 확장이 이뤄지는 모습도 보였다.







3 | 새로고침 셋-학부모 자체평가

보육 유경험자나 재원 부모 자체 모니터링 시 꼼꼼하게 점검해주셨던 부모님을 선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부모님들께 미리 체크리스트를 송부하여 숙지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친숙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해주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었다. 평가 후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 보육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반 놀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자체평가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주도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4 | 새로고침 넷-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현저하게 줄어든 서류 간소화로 어렵지 않는 현장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더 강화된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영역은 그동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점검을 받았다. 일부 관찰과 동시에, 면담과 컨설팅까지 진행되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교사의 유능함을 격려받을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평가제는 등급별로 똑같은 문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현장평가 후에 서술형 평가결과서를 받아보고 여러 번 반복해 살펴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우리 원만의 특색을 잘 정리해주셔서 시범사업 확인서와 함께 부모님들께 공지했다. 특히 평가결과서는 신학기 입소 상담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편될 평가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우리를 잘 알아가는 '다 함께 평가제 새로고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기관) 부문 수상작

우수상

어린이집의 든든한 지원자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서울 동작구 구립 노블어린이집

1 |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그게 뭔데?

우선 평가제 개편(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맞춰 6개 영역이 구체적이었으며, 영유아의 권리 존중 개념이 지표 전반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범사업 평가지표 안내서'에서는 보육 현장 이해 도모를 위한 상황별 사례들이 사진과 상호작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수준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해주었다. 동시에 평가 방법 및 검토 문서 등은 부록으로 제시하여 안내서만 읽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2 | 우리가 원하던 평가제-평가제가 달라졌어요

1. 기존 평가제와 달라진 점

첫째, 먼저 서류 간소화로 과중한 업무가 줄었다. 지표 확인을 위한 많은 서류 중 꼭 필요한 서류도 있지만, 내용이 중복되거나 서류의 개수가 많았던 기존 평가제와 달리 기본적인 서류들만 확인하여 교사의 부담이 줄었다.

둘째, 관찰과 면담의 비중이 늘었다. 평가 당일만을 위한 평가제 준비가 아니라 평소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행사, 놀이 지원,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관찰과 질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보육 활동이 평가되었다.

셋째,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질이 향상되었다.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실행하는 교사 주도 놀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영유아들이 놀이의 방향을 정하고 교사가 지원하는 놀이중심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교사도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관찰하고 영유아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놀이의 과정을 함께 즐기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

넷째, 교사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겼다. 주기에 맞춰 평가를 받고 위축되는 모습의 교사가 아닌, 활기차고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는 교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컨설팅으로 진행되어 전문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현장평가 진행

현장평가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사의 상호작용 및 지원 등을 관찰했다.
교사 면담에서도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지역사회 연계로 그곳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놀이는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게 되었나요?"와 같이 교사가 변화하는 아이들 놀이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육과정 평가에 따라 반영된 부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다. 실행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의 질문들이었고, 교사의 놀이 지원에 대한 과정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평가결과 확인

평가결과서는 단순한 평정 형식이 아닌 6개 영역별 구체적인 서술형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개선 방향 및 활용 방식 등이 작성되어 있어서 평가제 이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 어린이집의 든든한 지원자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개편되는 평가제는 일과 운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컨설팅 중심의 자율적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잘 느낄 수 있었다.
학부모들 역시 기존과는 달리 서류 간소화로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어 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에 더욱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평가제 개편(안)이 추구하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등급별로 나누고 보육 현장을 점수의 잣대로 평가하는 수동적인 평가제가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아이가 주체가 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자인 평가제 개편(안)이 하루 빨리 실행되길 바란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우수상

같이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

경기 화성시 시립 동탄파크자이어린이집

1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내용

1.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의 이해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여 평가제 개편의 추진 배경 및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준비를 실시했다. 또한 평가지표 안내서를 교재로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안내서가 사례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함께 생각해보기' 항목을 통해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평가 요소를 이해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사전·사후 인식도 조사

사업설명회와 자체 교육 실시 후 보육교직원의 개편된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사전 인식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사전 인식도의 경우 개편된 평가지표, 자체평가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평가지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성보다는 심적 부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후 인식도 조사 결과, 컨설팅, 서술식 결과보고서 등의 과정을 경험한 후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변화했다.

3. 부모·보육교직원 자체평가 실시

평가제 개편의 가장 큰 변화인 자체평가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입장이 달랐다. 학부모들은 부모 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참여와는 차별화 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반면, 보육교사들은 부모가 보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자체평가 결과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자체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결과

1.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제

평가제 개편(안) 평가 항목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아동 중심, 아동권리 개념이 강조되어 보육서비스 품질의 질적 수준에 있어 근본적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등급으로 제공되는 평가 결과와 달리, 서술형 평가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이나 보육과정 운영 수립에 반영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문서를 중심으로 개편된 평가지표는 보육교사의 문서 업무 축소로 평가제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현장관찰 당시 보육일지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놀이 중심의 간략한 작성을 컨설팅 받을 수 있었고, 시범사업 평가지표 안내서와 같이 추후에도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교사들의 놀이와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어린이집 자율 품질관리 역량의 평가제

자체평가 과정은 긍정적이었으나 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자체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자료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작되어 각 가정에 체크리스트와 함께 전달되었으면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참여 전후 인식 변화의 계기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자의 컨설팅 부분이다. 특히 현장평가자의 컨설팅은 보육교사가 반 운영 및 놀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교사들은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나름 고민하고 더 나은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원장 또는 동료 보육교직원 이외에 자신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제 실시 이후에도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평가자 또는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가 향상되고 유지되어야겠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장려상

2024 개편 평가제 지표 마련을 위한 제안

경기 오산시 시립 은빛어린이집

1 | 놀이 중심 보육과정과 보육 공동체 의미

이번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교사들에게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앞섰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개정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연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충실히 풀어볼 수 있었다.

우선, 개편(안)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표 중 '2영역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에서는 '놀이 지원'이 익숙한 교사들에게 '배움 지원'이라는 표현의 어색함이 있었다. 영유아들의 놀이 관찰을 배움으로 기록하는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원장의 피드백과 제안을 담아 교사들만의 서술 방식을 존중하며 영유아 놀이를 해석하고 맥락을 좇아가는 기술 과정을 독려해주었다.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아이들마다 다른 표현 방식을 이해하며 원하는 요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반응적 상호작용을 확신시켜주면서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4영역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에서도 교사들의 고민은 이어져갔다. 교사의 기대가 반영된 예상 계획이 수립되지만, 영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자료로 놀이 방법을 찾아 만들어가며,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며 놀이에 집중했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혹은 생각이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놀이 지원계획을 세우고 반영하면서 영유아들은 지원된 놀이 환경 속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놀이로 보육실 곳곳을 놀이터로 주렁주렁 엮어나갔다.

교사들은 일주일간 영유아들의 놀이 흔적을 따라가며 영유아들의 관심이 어디로 펼쳐졌는지, 어떤 배움의 요소가 더해졌는지 함께 평가하고 기록하면서 다음 놀이계획과 지원을 위한 사고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본원에서는 「교사의 사전준비 사항, 가정 연계, 안전, 다음 주 지원 연계 등」을 기록해보았고, 이러한 기록을 통한 반성적 사고의 경험은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영유아들의 놀이 활성화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바람직한 놀이 지원 방법을 찾고자 하는 교사의 의무와 책임감에 무게를 두게 되었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책무성이라는 역할 숙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번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의 보육철학과 교육의 방향을 위해 더 나은 비전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통해 영유아들의 전인 발달이라는 공동의 보육 목표를 공유하며 보육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볼 수 있었다.

2 | 평가제 개편(안) 발전을 위한 제안

새로운 시도에는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육인으로서 개편 평가제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체평가 단계에서 부모 참여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이번 시범사업 지표 6개 영역 중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이 4개 영역으로 크게 펼쳐지면서 기관의 충실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대해 부모가 평가하는 '자체평가'가 진행되었다. 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참여 과정을 단계로 문서화하거나 준수 절차 같은 방안 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개인의 역량 또한 자체평가의 질을 가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는 부모의 자격 기준(예: 양육 경험의 기간, 지표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의 참여 등)에 대한 기본사항이 더해지는 보완 또한 논의해볼 수도 있다.

둘째, 개편 평가제에서는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위해 유연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율(수정) 지표의 추가 구성을 제안해본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도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집마다 기관장의 보육 철학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시책과 국가정책을 반영하면서, 차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바람직한 보육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율(수정)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획일적인 점검에서 더욱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접근으로 보육 현장의 노력을 반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적 요소를 향상시키면서 수요자인 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이끌게 하는 성장 시스템이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하면서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한 기저로 작동하면서 보육 현장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 현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 협력 기관으로서 묵묵히 일궈온 이 기초 위에, 어린이집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기관이 지닌 역량을 인정받고 개선을 통해 또 다른 성장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장려상

평가제로 배운 자신감! 전문 놀이 지원가로 거듭나다!

충북 청주시 근로복지공단수안들어린이집

1 | 사전 준비 및 계획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교사 회의를 통해 참여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부모님들께 본원이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을 공지한 후 평가위원을 선출했다.

2 | 실행

교사 회의를 통해 평가제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존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2영역 영유아 주도 배움 지원과 4영역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많았다. 본원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영유아 놀이 지원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더욱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체모임



보육과정 컨설팅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보육과정 컨설팅에 참여했고,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전문가에 의한 지원을 통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이때 컨설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체 모임을 꾸준히 가지며 놀이지원가로서 나의 장점과 부족한 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학습공동체를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 등에 관해 수시로 공유하며 한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육과정 컨설팅과 자체 모임을 통해 내실을 다진 후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교실에는 아이들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다름을 존중하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교사회의를 통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재교구 항목을 구입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실수할 수 있는 상호작용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현장평가일에는 일과 관찰을 마친 후 면담을 진행했다. 이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며 궁금했던 점들을 질의응답하며 현장평가자와 보육교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서류가 눈에 띄게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서류 준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영유아 놀이 관찰과 지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3 | 결과 및 평가

현장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교사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영유아 존중을 기본으로 한 능동적 배움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보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며, 교사는 이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즉, 표준보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보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평가제가 되겠지만, 수박 겉핥기식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어려운 평가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번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거듭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4 | 평가 후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해도 소비자가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소개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평가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부모님께서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며 '평가제에 대한 확신'과 '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카드 뉴스

이처럼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놀이지원가로서 지금껏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평가제 개편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컨설팅과 자체 모임을 만들어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보육 전문가로서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아이와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한 평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보육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을 얻고 모두가 행복한 평가제에 한발 다가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한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장려상

볼륨 UP~!! 보육 UP~!!

충남아산시 캐슬어울림어린이집

1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배경

본 어린이집은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와 함께 보육의 책무성에 솔선수범하고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이번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적극 참여했습니다.

2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과정 및 결과

사업설명회 참여 개편되는 평가제의 지표에 대한 설명회에 원장과 주임교사, 담임교사 총 3명이 참여하여 6개의 지표로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숙지했습니다.

개편 평가지표 스터디 정기 교사회의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개편된 평가제 지표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지표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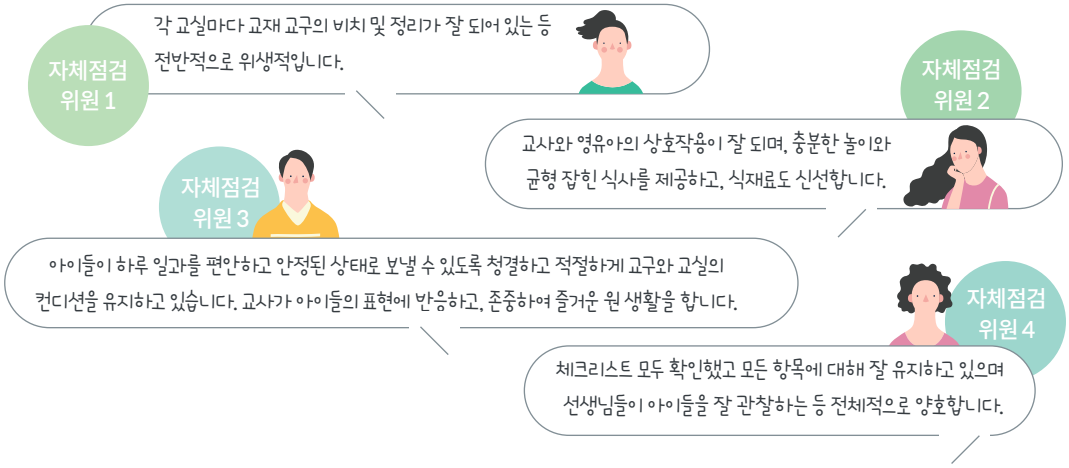
자체평가 진행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제 자체점검 위원회를 구성 후 자체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교사학습공동체



자체점검 위원회



3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후 얻은 긍정적인 부분

놀이 중심 보육과정 평가 서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져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류 간소화 관찰일지 등 서류로 평가했던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어 교사들의 업무가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교사의 적극성 향상 교사학습공동체 진행과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의 질 향상, 부모님들과 과정 및 결과 공유를 통해 더 높은 신뢰감을 형성했습니다.

4 |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개선된 내용

교사의 입장 시범사업에서 서류 업무와 보육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경험하여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 흥미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입장 원장의 리더십과 운영 철학에 대한 깊은 숙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 시범사업 평가제를 통한 보육환경의 품질 관리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어린이집 전반에 걸쳐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 자체점검위원회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가정과 놀이 연계 등에 대해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기관)부문수상작

장려상

‘평가제 학습공동체’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

충남 천안시 청당서희어린이집

1 | 참여 배경

새롭게 개편되는 평가제는 서류는 경감되면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설명회 참여 후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평가지표 안내서의 영유아 놀이 및 일상생활의 사례를 같이 공부하고 나누며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변화되는 평가제가 영유아에게는 권리 존중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보육교사에게는 보육과정의 역량 강화로 자긍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게 되어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했다.

2 | 시범사업 실천 내용

1단계 학습공동체 만들기(놀이 및 일상생활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정답지)

개편 평가지표 안내서를 받은 후, 교사들에게서 “이건 사례집 같아요”, “우리 반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보육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나 봐요” 등의 질문이 쏟아져나왔다.

예전에는 실내 놀이공간이 언어, 수조작, 역할, 쌓기, 감각 탐색 영역으로 표현되었다면, 개편 평가지표 안내서에서는 이야기 공간, 표현하기 공간, 알아가기 공간, 구성하기 공간, 되어보기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공간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연령과 발달에 따라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지, 영아에게도 일상에서 다양한 배움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관찰일지, 발달평가에서 계획-실행-평가-지원의 순환 과정을 거쳐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경험 지원을 증진시켜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목표, 내용을 참고로 일지를 작성하면서 교사들은 영유아 발달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영유아 발달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게 되자, 그동안 발달보다는 높은 목표 설정으로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영유아 발달을 이해하니, 영유아에게 더 허용적이고 교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속상함이 줄어듦을 깨달았다.

2단계 보육과정 상호작용 실천하기(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의 놀이가 신난다)

교사들은 교실에 글자로 공간 표현을 시각화하여 놀이의 주인이 영유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교실을 통합·확장하고 비정형화된 교재를 추가 제공하여 놀이가 확장되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 비정형화된 재료로 놀이가 더욱 창의적이고 영유아 주도로 진행될 수 있었고, 공간이 확장되었을 때 다툼이 덜 일어나고 놀이 또한 통합·확장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평가지표 안내서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 공간 곳곳에 복사·게시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원하자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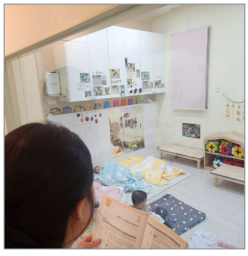






3단계 자체평가하기(함께여서 행복한 부모)

자체평가위원 활동을 신청한 부모님과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기 위해 참관실에서 놀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께서는 주간 놀이계획안에서 보았던 놀이가 영유아 주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놀이를 통해 교사와 영유아 간, 영유아들 간 배움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놀이 개방의 날을 만들어 평소에도 부모님들께서 원에 방문하여 영유아들의 놀이를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며, 직접 영유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을 보니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집에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4단계 현장평가(어린이집에 힘을 주는 세심한 피드백과 칭찬)

현장평가자는 등원 맞이부터 일상, 놀이, 상호작용, 환경을 관찰했고 서류를 세심하게 평가했다. 특이하고 새로웠던 점은 원장에게 다각도로 질문하여 원장의 보육 철학과 방향성, 현장 적용 사례를 체크하는 부분과, 관찰 대상이던 교사와 면담을 한다는 것이었다.
평가 시간이 끝난 후 어린이집의 상호확인서를 받으며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기록한 내용을 제공해주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내년, 후년이 더 궁금하고 기대되는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으로 응원해주셨다.

3 | 결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교사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보육 상호작용 팁, 자료 등을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 영유아의 발달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들에게는 확장된 공간과 비정형화된 놀이재료로 안정적인 놀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에게는 자체평가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새롭게 개편되는 평가제를 계기로 영유아들의 행복 증진과 교사의 역량 강화로 영유아들이 존중되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부모(개인) 부문 수상작

부모(개인)부문수상작

우수상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의 문을 열다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어린이집
부모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 어린이집 등록증을 냉장고에 붙여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학부모가 되었다.

작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의 여러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복직을 하고 나니, 어린이집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직장에 매여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어린이집 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줄 수 있는지를 제안받았다. 오랜만에 어린이집을 들여다볼 기회다 싶어 수락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환경이었다. 평소에도 아이가 두 그릇씩 밥을 먹게 하는 조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깔끔했다. 청소 상태도 정말 양호해서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화장실은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받침대를 설치했는데, 받침대 위아래 위생 상태도 완벽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임에도 칸막이가 있어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곳곳에 온·습도계가 있어 보육에 적합한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 아이가 있는 1세반은 물론, 2세부터 5세까지 형·누나들이 활동하는 학급을 모두 돌아보니 영아와 유아의 발달 과정에 맞춘 교실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림과 색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영아반과 입식 생활을 하는 유아반의 차이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영아반에서 수건 스스로 걸기, 양말 스스로 신고 벗기,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이 서서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갔다. 유아반에서는 스스로 물을 따라 먹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발달 단계에 맞춰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부쩍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관심사가 다양해진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됐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교실 입구마다 있는 놀이계획안이었다.



보육과정안은 매월 알림장을 통해 받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입구마다 걸려 있는 놀이계획안은 선생님들의 손 글씨로 새로운 말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계획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고, 선생님들의 계획은 아이들의 걸음을 따라 유연하게 확장되었다. 늘 아이를 하원시키느라바빠자세히들여다보지 못했던 놀이계획안 안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 제안을 받아 시범사업 참여를 수락하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점검한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사실, 워낙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의 의문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부모로서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은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부모로서 궁금하면서도 들여다보기가 어쩐지 조심스러운 것들이다. 우리 어린이집을 표방한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한국인의 정서상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도 사실이다.

나의 이번 참여는 내 적극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권유로 가능했다. 급기야 어린이집이 문을 열다 못해 레드카펫까지 깔아준 뒤에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본 셈이다.

그렇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린이집의 여러 요소를 들여다보니, 어린이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이계획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지 등 알게 된 것이 많았다. 어린이집은 우리를 향해 늘 열려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서도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랐던 까막눈이 비로소 개안한 기분이다. 한없이 소극적인 학부모를 한없이 적극적인 어린이집이 마침내 눈뜨게 해준 것이다.



부모(개인)부문수상작

장려상

아이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충남 당진시
한라비발디어린이집
부모



아이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소중한 아이들을 믿고 맡긴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에, 우리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시행된 시범사업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시범사업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 아이들이 머물다 가는 보금자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하는 마음과는 달리 많은 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힘쓴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서면 처음 무엇을 보게 되는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케어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 무척 만족스러웠다.

필자의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참관 및 평가를 하며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특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집중을 시켰다. 그날의 어린이집 커리큘럼 안에 있는 놀이와 사물 그리고 공간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교감이 무척 돋보였다.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선생님과 원장님께 질문을 해본 결과,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날그날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른 커리큘럼의 변화였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닌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놀면서 자라난다'라는 보육 지향점이 그 이유인 것이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산책길에서 지렁이를 만났다면?'이란 주제로 준비한 수업이 있었다. 아이들이 지렁이에 큰 관심을 보이니 그날은 비와 지렁이를 주제로 한 커리큘럼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다. 실제로 그날 우리 아이는 지렁이라는 단어를 배워와 말문이 터졌다.

어른들만의 생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와 변화를 경험시키는 것 또한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집중력과 경험을 일깨워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매번 변화하는 틀에서 벗어난 커리큘럼을 이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컨디션 또는 관심도에 따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건강히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관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모든 곳이 개방되어 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눈에 들어오는 주방이었다. 각 연령에 맞춰 준비된 식재료와 간식은 무척 신선하고 조리 과정도 청결해 보였다.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부분은, 세제 하나까지도 상품을 개봉한 날짜를 기입해놓은 것이었다. 내 아이가 이와 같은 시설에서 지내며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또한 칫솔뿐 아니라 양치 컵까지도 살균 세척 및 소독을 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었고, 주기적인 전체 방역뿐 아니라 아이들의 손이 닿는 모든 사물은 사용하자마자 곧바로 소독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필자가 염려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5개월 전 내 아이의 모습과 지금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아이의 행동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큰 변화가 찾아왔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에는 부모가 없는 시간 동안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준 어린이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참관 및 평가를 하며 수시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는 처음 긴장하며 들어선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녹여주는 듯했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순히 시간을 채우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분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의 언어와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느끼는 듯했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시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구성원이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지를 엄마인 나 역시 몸소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필자에게 참관의 날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시간이었다. 처음 시작은 날카로운 눈으로 모난 곳을 찾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것은 필자의 괜한 걱정이었다.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부모 참여 평가제는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자,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소중한 참여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의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흡한 부분만 개선해나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직원들과 교육 역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방향성과 화합으로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집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꿈꿔본다.

오늘도 우리 아이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집을 향해 뛰어 들어간다.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펴 낸 날 2024년 4월
발 행 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02-1661-5666)
디자인 및 인쇄 ㈜유월애디자인(전화 02-859-2278)

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24-902

* 사전 승인 없이 자료집의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공모전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